

경제

광주시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

‘하도급 보호 조례안’ 전국 최초 추진

원청사 부당행위 방지... 오늘 시민공청회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1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강은태 광주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직불제 조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데 따

른 후속조치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총 8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전문건설업계가 권익보호 차원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고질적이던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종합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그릇된 관행이 만연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하도급 대금 1조4706억원 중 어음결제 금액은 1872억8700만원(13%), 대물지급은 13억1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어음으로 수령한 대금 1872억원 가운데 46%인 856억 원은 법정지급기일(60일)이 지난 장기어음인 것으로 드러나 하도급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전문업체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하도급을 체결한 4000만원 이상 공사 3788건(1조7860억원) 가운데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18%(688건)에 불과, 상당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원천

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받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어음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시 분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공사, 공단,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 발주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은 총 245개 업체 중 128개 업체로 52.2%에 그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생명 쌀 100가마 기증

삼성생명 호남지역사업부(이하 호남 사업부)가 노인의 달을 맞아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7회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쌀 100가마를 기증했다. 지역의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호남 사업부가 기증한 쌀은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득격차 더 벌어진다

기업 보수적 투자... 일자리 기회 줄어

LG경제연구원 보고서

국제 금융위기 이후 조금 좁혀진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앞으로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10일 ‘2009년 이후 소득격차 완화

는 일시적 현상’이란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한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296에서 지난해 0.293으로 하락했으며,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배에서 4.92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조만간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윤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부문의 산업 간 성장률 격차가 심한 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가 보수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세가 줄었다”며 이러한 요소가 소득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출 유망中企 발굴·육성사업 큰 성과

광주·전남중기청 상반기 140개 업체에 511억 지원

수출 1억5800만달러로 급증... 2차 업체지정 계획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0일 “올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된 140개 업체에 대해 무역·수출금융 및 수출보험·보증, 해외규격 인증 획득,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총 290여 건, 51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67개사, 전남 61

개사, 제주 12개사 등이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 실적은 2008년 1억 1500만달러, 2009년 1억2500만달러, 올 상반기 1억5800만달러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A사의 경우 수출보험 할인과 코트라 지사화 사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 2008년 2만4000달러이

던 수출 실적이 지난해 87만달러로 급증했다.

B사의 경우도 중기청의 해외규격 획득 지원과 수출 신용보증 및 수출보험 할인, 코트라 보증브랜드, 수출금융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수출 실적이 2008년 96만5000달러에서 지난해 101만4000달러로 100만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1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이달 22일까지 2차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전남·제주지역

에 있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으로 전년도 또는 금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모두 23개 수출 관계 기관의 우선 지원, 자금대출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적용, 수출보험·보증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기업은 광주·전남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gwangju)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미래가치도 고려 정책자금 지원

중기청 내년부터 ‘고성장 기업’ 매출액에 포함

중소기업의 현재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고려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사업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0일 “창업 기업이나 성장 속도가 빠른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미래가치 등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늘려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시설투자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금융을 신청할 경우,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최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다.

당장 매출이 적으면 그만큼 정책자금을 적게 받는 구조다.

그러나 중기청은 앞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평가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래가치를 감안한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결정하기로 했

다.

고성장 기업군에는 정책자금을 신청한 해의 분기 매출액이 직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 같은 정책자금 운용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온라인 쇼룸을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e-매출채권보환’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환은 기업이 거래 상대의 지급 불능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업체 10곳중 8곳

“체감경기가 어렵다”

소상공업체는 10곳 중 8곳 이상이 현재 체감경기에 대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에 따르면 현재 체감경기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가 82.8%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5.0%였고 ‘좋다’는 반응은 2.3%에 불과했다.

경기가 어렵다고 본 업체들은 53.1%가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영업을 확장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전문직도 ‘빈익빈 부익부’

연 매출 2400만원도 안되는 변호사·회계사 등도 속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매출은 3년전보다 증가했지만, 연간 매출이 2천 400만원도 안되는 ‘헝그리 전문직’은 오히려 더 늘어나 전문직 업계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문직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변호사 3억9200만원, 회계사 2억7900만원, 세무사 2억4400만원, 관세사 2억9300만원, 건축사 1억 1200만원, 변리사 5억7700만원,

법무사 1억2300만원, 평가사 1억 1600만원 등이었다.

연간 평균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7명 가운데 1명꼴 즉 전체 변호사 3447명 중 495명(14.4%)이 연간 매출 규모가 24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사 7.9%, 세무사 7.6%, 관세사 8.9%, 건축사 27.6%, 변리사 11.6%, 법무사 12.4%, 평가사 22.8%의 연간매출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로도복권 (제410회)		팝콘복권 (제21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원)
1 3 18 32 40 41	16	1	5억
등 위	당첨금(원)	2	1억
1 6개 숫자 일치	1,249,335,709	3	1천만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648,745	4	1백만
3 5개 숫자 일치	1,438,223	5	50만
4 4개 숫자 일치	50,000	6	2천
5 3개 숫자 일치	5,000	7	1천

팝콘복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408820
2	1억	5조 346191
3	1천만	4조 885683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66901
5	50만	각조 4491
6	2천	각조 58
		각조 91
		각조 65
		각조 1
7	1천	각조 4
		각조 3

코스피지수 1,897.07 (-3.78)

코스닥지수 497.08 (+0.94)

금리 (국고채 3년) 3.27% (-0.04)

원·달러 환율 1,120.30원 (+5.80)

※수치는 8일 기준 1주전과 비교

장성읍 소재, 임대 공장

푸른산 테크빌

즉시 입주 및 생산가동 가능 | 경제적인 분양가/임대료

- 분양 / 임대:
 - 170㎡ (57평형) 창업, R&D용
 - 330㎡ (100평대)
 - 660㎡ (200평대)
 - 1,000㎡ (300평대)
 - 1,300㎡ (400평대) 다수 준비됨.
- 수도권 이전 기업:
 - 분양가의 50%까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지식경제부)
- 임대 입주기업:
 - 파격적인 임대료 수준

문의/연락처 : 전라남도 장성읍 장성읍 영천리 738
Tel : 061-393-7855/7(현장 사무실) www.bluemountvil.co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